

H사

2022 주니어 글로벌 프로그램

가족참여형 비누공예 & 쿠키 클래스



글로벌교육사업본부
배주희 (Jennie) 매니저

교육과정의 기본 사항을 소개한다면...

주니어 프로그램은 임직원의 자녀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가족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영어 학습도 하면서, 원데이클래스처럼 제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2022년에는 쿠키 클래스와 비누공예 클래스, 총 2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원어민 강사님과 함께 1시간동안 제품을 만들어보고, 관련된 영어단어와 표현을 학습하고, 다 만든 후에 다같이 리뷰를 하면서 마무리하는 구성입니다. 2021년 10월에 첫 시작으로 쿠키클래스를 진행했고, 만족도가 높아서 올해도 개설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준비과정에서 특별하게 Focus를 맞춘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평균연령 6~8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제품선택에 제일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만들기 쉬운 제품이어야 하고, 프로그램별 진행시간이 1시간이었기 때문에 30분 내외로 만들



비누클래스에서 만들었던 귀여운 물고기 비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비누 만드는 법을 설명해주는 강사님

수 있는 제품으로 고르고자 했습니다. 쿠킹클래스는 남녀노소 좋아하는 떡볶이 중에서도 크림떡볶이로, 비누는 물고기 모양의 작은 비누 세트를 선정했는데요, 위 사진에서 귀여운 결과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업 교육의 특징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 프로그램은 기업에서 임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내복지성 프로그램이자, 동시에 어학학습도 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 native인 원어민 강사와 진행하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영어를 배우면서, 동시에 상품을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만족도 또한 우수합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주말에 자녀와 함께 어떻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이 때 자녀와 즐거운 추억도 쌓고, 동시에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덕분에 임직원도 만족하고, HR 팀도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교육 중에 기억에 남는 학습자나 관련 에피소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프로그램을 진행할 강사를 섭외하는 게 제일 어려웠던 과정입니다. 보통의 기업체 강의처럼 영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상품을 만들면서, 100여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많은 섭외와 강사님들의 거절, 고군분투(?) 끝에 멋진 강사님을 초빙하였고, 성공적으로 교육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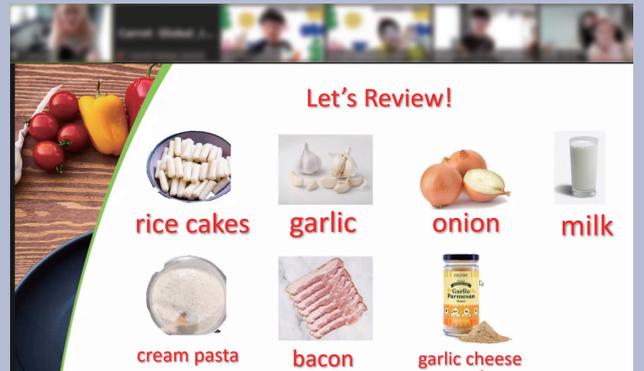
교육담당자로서의 보람과 포부를 말해주세요~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장 큰 보람은 학습자의 리뷰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업계 S 고객사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했었는데요, 학습자 한 분으로부터 "교육이 값진 시간이었고, 너무 유익했다"는 문자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매니저로서 제가 기획하고 진행한 교육과정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아침부터 훈훈해진 팀 분위기에서 기쁘게 하루를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만족도와 성과를 끌어내는 교육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고자 합니다. 고도화시대에서 기술만큼이나 인적자원도 자산이 되는 현재입니다. 기업의 인력개발과 글로벌화에 꼭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컨설턴트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세션인 쿠킹클래스 시작, 메뉴로 선정된 크림떡볶이를 만드는 강사님



요리 레시피와 관련된 키워드를 배우면서 영어학습을 병행하고 있는 활동 사진



쿠킹클래스, 맛있는 크림떡볶이 완성